

연중 제22주일

제 1 독서 : 집회3,17-18.20.28-29

제 2 독서 : 히브12, 18-19.22-24a

복 음 : 루가 14, 1.7-14

숲 정 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루가 14, 11).

강 론

“겸손”

성민호 신부 / 주현동 천주교회

예수께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 잘난 체하면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가소로운 모습을 보시고 혼인잔치의 예화를 들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성서에 여러 번 나오는 이 말씀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중에 겸손이라는 품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법규를 철저히 지켰지만 교만한 탓으로 하느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비록 죄인이었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세리의 비유를 보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악마가 된 것이나 우리의 원조가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오로지 교만 때문이며 반대로 성모 마리아가 주님의 모친으로 선택되신 것은 그분이 참으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완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인 “겸손이 없으면 아무 덕도 없고 겸손하면 모든 덕이 따라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을 올려주고 자기를 낮추는 비굴도 아니며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는 기만도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거나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은총을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소 리

“외교 못지 않은 내치름”

한동안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제 2 이동통신 사업권 파문이 가라앉던 날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반세기 가깝게 지속돼온 한국과 중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양국간에 우호의 시대가 열렸으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한국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정식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고 특히 6·25 때 교전국인 중국과의 수교로 동북아시아의 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로 진즉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졌으므로 우리나라의 남북간 대립관계를 제외한다면 전세계에 이념 대립은 없어진 셈이다.

중국과의 수교로 새로운 남북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모두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는 냉전체제의 유물이라 할 국가보안법이 건재하고 있다.

6·25 때 교전국인 중국·구 소련과는 정식 외교관계를 맺어 평화공존을 구가하면서도 동쪽끼리의 대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중국과의 수교가 멀리는 통일에 밀거름이 되고 가깝게는 나라 일의 냉전체제 소멸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숲 정 이 산책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창세 6,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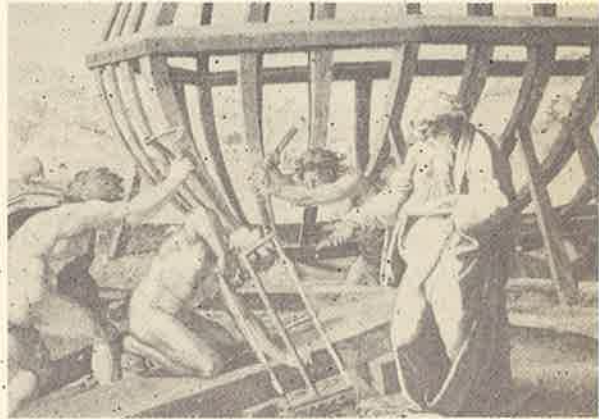
홍수설화는 고대 근동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큰 강을 끼고 형성된 문화권 안에 전해져 오고 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유역에서 큰 물난리가 났다는 증거는 고고학적인 발굴로 입증된다. 창세기 홍수설화는 조잡하고 다신적인 바빌론 설화와는 달리 오래되고 단순한 어떤 홍수 이야기로부터 발전되어 나왔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설화는 두 가지 전승이 얽혀 있는데 야훼스트 문헌에는 노아가 일곱 쌍의 정(淨)한 짐승과 두 쌍의 부정(不淨)한 짐승들을 방주로 불러들인데 반해 사제계 문헌에는 모든 동물들이 두 쌍씩 방주에 들어간다. 또한 사제계 문헌에선 땅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줄기들이 터져나와 홍수를 이루지만 야훼스트 문헌에선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진 비 때문인 것으로 묘사한다.

원조의 타락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범죄가 객관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반해 노아의 홍수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악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참 좋았다”라고 감탄하시고, 만족하셨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해 썩은 냄새를 피우는 세상에 충격을 받으시고 실망과 후회를 하셨다.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알아듣게 해준다.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은 추상적 관념이나 철학적 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대화하시는 인격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온 세상에 만연되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부패된 모습을 “폭력이 가득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폭력이 난무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충격을 받으신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창조를 후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당혹은 어떻게 죄가 갑자기 세상에 들어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창세기 저자의 당혹을 말해준다.

모든 사람들이 폭력의 편에 가담해 있는데 노아라는 한 의인은 예외였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던



방주를 만드는 노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는 노아를 징벌에서 구하기로 작정하신다. 노아 한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다른 동물들까지도 구하신다. 한 사람의 의가 새로운 창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멸망과 구원의 연대성,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 있다. 죄악에 가득찬 세상을 징벌하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를 새롭게 하는 쇄신이고, 그 어떤 집단의 폭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첫번째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패한 천지를 하늘의 빗물로 깨끗이 씻기 위해 폭우를 내리겠다고 하신다. 노아에게는 폭우로 인한 물난리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매의 치수까지 자상하게 가르쳐주신다.

공예가구

아 씨 방

(이리 대리점)
류 경 선(요 한)
전 춘 자(수신나)
이리시 선동 806-7
☎ 858-0196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전주 가구점

최고급 나전칠기 장농·화장대
고급 쇼파·침대
맹 문 희(테레사)
박 병 주(베드로)
전주시 인후동 농고 정문 앞
☎ 84-3984

개업안내

웅진한성물산주식회사 **까네트**

혼수품(침구류) 전문업체 전주지사
지부장 탁 경 희(울리안나)
☎ 231-4662(3)
* 함께 일하실 분 연락바람.

5분교리 17

“교회가 하는 일”

지난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의 참된 요소에 대해서 보았다. 오늘은 교회가 하는 일과 그 권한을 살펴보겠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많은 시간을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바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하느님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당신 백성을 신적 진리로 초대하셨다. 진리의 교사로 생애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사자격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고 사도들을 계승한 신앙의 공식교사는 사도시대 이후의 교황과 주교들이다. 사제들은 주교의 공식 파견을 받아 복음을 설교한다. 원래 무지했던 하느님 백성이 초자연적 가르침을 받아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며 보다 깊은 진리와 신비를 더듬어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들을 이어 가르치는 교사와 그것을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 이 신앙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보호하심으로 교회는 그 가르침에 있어 그르침이 있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권위있는 스승의 가르침은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그릇됨이 없다고 하는 근거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 권위가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공의회와 교황의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무류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시진리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로지 하느님 백성의 선의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무류권을 통해 교회 전체의 신앙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이 구원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느님 뜻을 받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교회는 '가르치고, 다스리며, 성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참고 자료 : 내 양들을 돌보아라(슬라이드 19분)

요십이 (995) 김병오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① 판매기간 : 8월20일-10월20일
② 규격 : 8kg 당, 1박스
③ 가격 : 특 20,000원, 대 17,000원
 중 14,000원, 소 8,000원
④ 주문처 : (0658)43-0880 사제관
원평 성당 최용준 신부

교육청 신고 2564호
우리 한문 교실
어린이 한자, 사자소학,
천자문, 명심보감 등
효자동 서원국교 후문 사거리
문혜영(파비올라)
☎ 224-5907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김문식(베드로)
풍납문<->송약국 사거리
중간

교구 소식

1. 초·중·고 교리교사 피정 : 9월5일-6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2. 가톨릭 문우회 모임 : 9월5일(토) 오후4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3.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9월6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4. 성모의 기사회 : 9월5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10월3일(토) 피정 있음.
5. 교구 빈첸시오 이사회 : 9월5일(토) 오후3시 황동 성당 사제관.
6. 푸른군대 월례피정 : 9월3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7. 전화번호 안내 : 윤희관(구 해성학교) 74-5879.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피정) : 9월 6일 원평 성당, 대상-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이, 회비-3,000원, 마감-8월31일, 접수-성바오로 서원(0652)252-3398.
- 살레시오수녀회 : 9월6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 인보성체수도회 : 9월6일 오후1시30분 본원(0652)84-3231.
- 사랑의 씨앗수녀회 : 9월6일 오후2시 금암 성당 교육관(0652)212-323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세면대에는 필요한 양의 물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을 틀어 놓고 세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양만 받아 놓고 사용해봅시다. 계속 습관화되면 놀랄만치 물이 절약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손한성(바오로)
정정남(가타리나)
교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명재의원 내
정형외과
인공 관절 클리닉
특수 아동아 상담
전문의 김종관(루가)
효자동 한국통신 앞
☎ 222-3000

태화 야채 효소 전복지사
제철 개선
김영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전문대반 모집
9월 신설반(처음부터)
전주 평화생학원
전주 74-7424 코어 후문 시청 사이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 날마다 그날 성서귀절을 한 번 더 읽으시다.
1. 추석명절 합동위령미사에를 접수: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참례하신 미사를 봉헌합니다.
2. 성시간: 3일 저녁미사 후.
3. 사목회상임위원회: 4일 저녁미사 후.
4. 병자봉성체: 4일(금) 사무실에 신청바람.
5.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1일(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3일(전10시30분) ③올트레아-6일(10시미사 후)
6. 교부금 미납되신 분은 정성껏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금주청소: 중노1, 2반
차주청소: 중노3, 4반.
☐ 지난주 봉헌금: 838,980원 ☐ 교무금: 1,034,50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삼인
1. 성지순례: 9월27일(주일) 장소-베트남. 회비-8,000원. 전신자 빠짐없이 신청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 신부님반-목요일 저녁미사 후, 수녀님반-주일 오전9시.
3. 추석 위령 합동미사: 9월11일 오전6시, 오전10시. 선영들을 위해 정성어린 미사 봉헌 바랍니다.
4. 열세자 첫 고백: 9월5일(토) 오후5시.
5. 회합: ①자모회(3일 오전10시) ②여성분과회(5일 오전10:30분) ③대견회(6일 공식미사 후) ④사목회(6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최옥남, 독서-나경섭씨 부부, 봉헌-하병규씨 가족.
차주전례: 황단금, 독서-지혜용씨 부부, 봉헌-김태수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34,190원 ☐ 교무금: 1,071,2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1. 추석합동 위령미사: 9월11일 공식미사만 있음. 미사에예물접수-사무실.
2. 사목회: 5일(토) 저녁미사 후. 3. 성모회: 공식미사 후.
4. 교리교사를 위한 헌금: 오늘.
5.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수녀원 신축 헌금: 금주-274만원, 누계-1,443만원.
7. 봉성체: 2일(수) 8. 성서읽기: II 열왕14장~25장.
9. 금주청소: 신비로운 장미Pr.
10. 금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양종태, ②송정자,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한동욱 ②주영래, 봉헌-유순천, 유춘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7,200원 ☐ 교무금: 143,0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용
※ 오늘은 연중제22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
1. 회의: ①사목회-9월2일(수) 오후8시 ②자모회-9월3일(목) 오전11시 ③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④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⑤계축프란치스코3회 총회-9월2일 오전9시.
2. 알림: ①미사시간변경-9월13일(일)부터 새벽미사-아침6시, 저녁미사-오후7시로 변경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추석명절미사시간-9월11일(금)(추석날) 오전10시(저녁미사 없음) ③추석합동위령미사에를-사무실에 접수(9월10일까지) ④추수감사미사(생미사)-9월10일(목) 오전10시에 봉헌하오니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⑤영성체-9월20일(일) 공식미사 중(유아세례도 같이 함) ⑥첫 영성체 교리-(국교4,5,6학년)9월1일부터 오후5시.
☐ 지난주 봉헌금: 737,500원 ☐ 교무금: 467,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9월4일 금요일 오후8시: 사목회.
2.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사무실에 접수.
4. 대축일 헛과일 봉헌(9월8일까지)
5. 청소년사: 3구역, 1반, 2반, 3반.
☐ 지난주 봉헌금: 636,610원 ☐ 교무금: 1,51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영태

1. 금주: 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2. 추석합동위령미사 접수: 사무실에 접수바람.
3. 성가정회: 9월11일(화) 오전11시.
4. 성체강복 및 조배: 9월3일 오전10시.
5. 봉성체: 4일.
6. 전국 올트레아: 9월27일(참가회명자 사무실에 접수바람)
7. 차주①올트레아(공식미사 후)
②계축 클라라 형제회(후1시30분)
8. 주일혼배: 본당 신자에 한해서 10월부터 주일오후1시에 1대있음.
9. 감사헌금: 이순남(마리아) 의자 페인트 도색 헌금(20만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완규
1. 축! 독서직 주직식: 31일 전11시 광주 신학대학 출발 9시. 회비-5,000원. 박동진(벨라도) 학사님 축하 드립니다.
 2. 성시간 성체강복: 3일 후7시30분. 순교자 생일을 다함께.
 3. 사목회 상임 위원회: 4일 후8시. 본당의 날 준비.
 4. 유아세례: 5일 후3시. 신청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5. 구역 반회장 연수: 1일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6. 베소라 성서 강의: 19일 개강, 입학원서 접수, 주 2,000원
 7. 초·중·고 교리교사 피정: 5일~6일 나바위 교육관.
 8. 추석 합동위령 미사 예물 접수: 10일까지 사무실에.
 9. 박 모니카 수녀 휴가: 1일~7일.
 10. 회의: 부녀회-2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6일 후2시30분.
- ☐ 지난주 봉헌금: 914,570원 ☐ 교무금: 94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1. ME 41차 주말부부를 축하드립니다! 안중기, 정순남 부부, 이기남, 김순이 부부, 김사육, 선문숙 부부.
2. 대견회: 9월3일(목) 오후8시30분.
3.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8시.
금주전례: 정길, 독서-봉헌-최복희, 최영식.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장은수, 백남두.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 이동섭

- ※ 오늘은 연중제22주일
※ 축하합니다: 푸르실로수료자 박영희(안젤라)
모임안내: ①구역봉사회-2일(수) 오전10시.
②까리따스-4일(금) 오후3시.
③선교분과-4일(금) 오전12시.
④성모기사회-5일(토) 오전10시.
⑤안나요셉회-6일(일) 오전12시.
⑥환자봉성체-1일(화) 오전10시부터.
※ 추석합동위령미사에예물접수-9월1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미사안내: 금주-상지옥좌, 성조들의 모후, 차주-순결하신 모후, 정의의 거울.
☐ 지난주 봉헌금: 1,377,140원 ☐ 교무금: 1,826,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모임안내: ①건축상임위원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③반석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2. 성지순례: 9월27일 장소-해미, 전신자 참여바랍니다.
3. 추석합동미사에를: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차주모임: 꾸리아, 신축헌금봉헌액-180,000원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임희준 ②김연수, 봉헌안내-김준태 부부, 송하영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임병용 ②정영호, 봉헌안내-김봉주 부부, 이재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24,260원 ☐ 교무금: 1,580,000원